

박경숙 예술감독 ‘한국춤비평가협 특별상’ 선정

## 광주시립발레단 예술적 성장·레퍼토리 개발 인정

“임기 종료 앞두고 ‘차별화된 전략 주요’ 수상 감사”

박경숙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이 한국춤비평가협회 특별상을 수상했다.

14일 한국춤비평가협회(회장 이종호)에 따르면 지난 13일 전체회의를 열고 공개 논의를 거쳐 ‘2025 춤비평가상’을 선정결과 박경숙 광주시립발레단 예술감독이 특별상에 올랐다.

박경숙 예술감독은 4년 재임 동안 ‘코렐리아’와 ‘세헤라자데’, ‘해적’ 등 새로운 레퍼토리 개발 및 다양한 작품 공연을 통해 지역 주민들에게 수준 높은 공연 감상 기회를 제공하고, 공공 발레단의 예술적 성장을 견인한 점을 인정받았다.

한국춤비평가상은 지난 1996년 무용평론가상으로 시작된 이래, 2010년 한국춤비평가상으로 재정립, 국내에서 가장 오래된 춤 부문 상이다.

이번 선정은 2025년 한 해 동안 국내에서 이뤄진 공연작과 활동 가운데 공공무용단을 제외한 민간단체 및 개인의 예술춤 공연 및 춤 관련 주요 활동을 대상으로 이뤄졌다.

선정 기준은 작품상과 베스트상 공연작의 경우 작품의 예술적 완성도, 참신성, 공감대 및 시의성, 연기상의 경우 무대 탁월성, 개성 및 공연 기여도 등이다.

작품상에는 김화숙과 현대무용단 사포의 ‘다시, 간이역에서’가 이름을 올렸다. ‘고도를 기다리며’(함도윤 안무), ‘블랙 다이아몬드, Black Diamond’(변수민 안무), ‘산왕대신기’(문진수 안무), ‘아무도, 아무 것도, 아닌 것이 아닌’(이윤정 안무), ‘흐르는’(장혜진 안무) 등 5편은 베스트 작품에 올랐다.

특별상은 박 감독과 김추자 국립부산국악원 선임기화단원, 장지영 국민일보 문화부 선임기자가 각각 선정됐다.

이외에도 춤 연기상은 ‘This is competition’의 안남근, ‘클라라 슈만’의 이윤희, ‘Highlight’ 및 ‘휘아’의 이이슬씨가 거머쥐었다.

박경숙 예술감독은 “2022년 취임 이후 연임해

16일 임기 종료를 앞두고 특별상을 받게 돼 감사할 따름”이라며 “2대에 이어 7대까지 예술감독을 맡아 광주시립발레단을 이끌면서 클래식 발레 뿐만 아니라 컨템포러리 발레 등 차별화된 무대를 선보여온 게 인정받아 뿌듯하다”고 밝혔다.

박 감독은 “국내 발레단으로서 다양한 무대로 광주시립발레단을 각인시키기 위해 노력해왔다. 앞으로도 시립발레단을 사랑해주셨으면 한다”고 덧붙였다.

시상식은 2026 춘계 신년 교례회와 오는 22일 오후 2시 서울 대학로 예술가의집에서 열린다.

정재경 기자 view2018@gwangnam.co.kr



## 이재태 전남도의원, 2025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 수상



이재태 전남도의회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전국 최초로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 제정  
소비자 보호·노인일자리 연계 기반 마련 호평

이재태 전남도의원(더불어민주당·나주3)이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가 주관한 ‘제17회 2025 지방의원 매니페스토 약속대상’에서 좋은조례 분야 우수상을 수상했다.

한국매니페스토실천본부는 지방의회 역량 강화와 주민 신뢰기반 구축을 위해 전국 지방의원을 대상으로 ‘공약이행 분야’와 ‘좋은조례 분야’로 나눠 매해 수상자를 선정하고 있다.

이재태 의원은 전국 최초로 제정한 ‘전남도 방문판매 피해 예방 조례’로 매니페스토 약속대상 우수상을 수상하는 영예를 안았다.

이 조례는 위법한 방문판매, 허위·과대

광고 등으로 인한 소비자 피해를 예방하고 지역사회의 안전한 소비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는 데 초점을 뒀다.

특히 지역 어르신들을 ‘방문판매 지킴이’로 위촉해 위촉해 피해 예방과 신고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며 이를 노인일자리 사업과 연계해 운영할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한 점이 높은 평가를 받은 것으로 풀이된다.

이 의원은 “매니페스토는 주민과의 약속, 올바른 정치의 척도라는 마음으로 임해왔다”면서 “앞으로도 현정의 목소리를 경청하고 지역 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입법 활동과 정책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전했다.

이현규 기자

박영재 광주시 학예연구사, 문체부장관 표창

박물관·미술관 발전 기여·전승문화 플랫폼 구축 등 공로

광주시 문화유산자원과 박영재 학예연구사(사진)가 2025년 박물관·미술관 발전에 기여한 공로로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표창을 받았다.

문화체육관광부와 새한국박물관협회는 최근 국립중앙박물관 대강당에서 ‘2025 전국 박물관·미술관인 신년교례회’를 열고 박물관·미술관 발전에 이바지한 유공자에게 정부포상을 수여했다.

박영재 학예연구사는 “2025 광주 방문의 해”를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의 ‘박물관·미술관 박람회’ 광주 유치 및 성공 개최에 기여했다. 또 지역 박물관과 미술관을 잇는 협력 네트워크를 구축해 문화기관의 역량을 한데 모았다.

인공지능(AI)과 문화기술을 활용한 ‘아시아공동체 전승문화 플랫폼’을 구축



양동민 기자 yang00@gwangnam.co.kr

해 문화유산 보존 체계를 확립했다. 특히 지역 문화기관과 기업에 고품질 문화유산 아카이빙 데이터베이스를 공개해 전시·영상·게임 콘텐츠 제작으로 이어지는

문화유산 관리 모델을 제시했다.

박영재 학예연구사는 “지역의 박물관과 미술관이 시민들에게 더욱 가까이 다가가고, 우리 문화유산이 첨단기술과 만나 새로운 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노력한 점을 높이 평가해 주신 것 같다”며 “앞으로도 광주의 문화유산이 시민의 기회로 다가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 담양경찰, ‘사랑의 헌혈’로 생명 나눔 실천

겨울철 혈액 수급난 해소 위해 경찰관·직원들 팔 걷어 붙여

담양경찰서(서장 양수근)는 14일 오전 경찰서 본관 앞 주차장에서 혈액 수급난 해소를 위한 ‘사랑의 헌혈 운동’에 단체 동참했다.

이번 헌혈 운동은 겨울철 추위와 겨울방학 등으로 혈액 보유량이 급감하는 시기를 맞아 공공기관이 앞장서 생명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고 헌혈 문화를 확산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행사에는 담양경찰서 소속 경찰관과 일반직 공무원 등 수십 명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 헌혈 버스에 올라 체혈 전 문진과 소독 등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한 가운데 소중한 혈액을 기부했다.

양수근 담양경찰서장은 “혈액 부족으



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환자들에게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직원들이 뜻을 모았다”면서 “앞으로도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지키는 본연의 임무는 물론, 소외된 이웃을 위한 다양한 사회공헌 활동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담양=조성용 기자 jwnnews@gwangnam.co.kr

## 전남자치경찰위, 고령자 안전한 이동환경 조성

설문조사 바탕 안전시설 개선·맞춤형 안전관리정책 추진

전남도자치경찰위원회는 고령화된 주민의 이동환경 안전 강화를 위해 진행한 고령자 교통사고 예방 설문조사를 바탕으로 안전시설 개선, 고령 운전자 맞춤형 안전관리 정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한다.

이번 조사는 최근 3년간 고령자 교통사고 발생 빈도가 높은 여수·나주·담양·영암 등 전남 4개 시·군의 65세 이상 고령자 220명을 대상으로 1대1 대면조사 방식으로 지난해 11월 한 달간 진행했다. 조사 전문성과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한국궤립조사연구소에 의뢰해 실시했다.

설문조사 결과 고령자들이 보행 중 가장 위험하다고 느끼는 장소는 신호등 없는 횡단보도(37.3%)와 이면도로 등 작은 도로(33.6%) 순으로 나타났다. 야간 보

행 시 위험을 느낀다는 위험 체감률은 36.9%로, 횡단보도 신호기 설치와 야간 보행로 조명시설 확충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교통사고 발생 시 책임 주체에 대해서는 운전자 책임이라는 인식이 79.1%로 가장 높아 운전자 중심의 교통안전 홍보와 교육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고령 운전자 면허 반납 제도 확대(70→65세)에 대해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83.6%로 부정적 의견이 압도적으로 많았으며, 면허 반납 시 선호하는 혜택으로는 택시비 지원이 48.6%로 가장 높게 나타나 경제적 인센티브 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교통안전 교육 방식으로는 방문형 교육



전남자치경찰위원회가 지난해 곡성군 건모마을에서 교통사고예방 홍보활동을 펼치는 모습.

이 가장 효과적이라는 응답이 55.5%였다.

전남자치경찰위원회는 이번 조사 결과를 토대로 고령자가 실제로 위험을 느끼는 환경과 정책 수요를 면밀히 분석해 신

호기·조명 등 안전시설 개선, 지역 공동체와 연계한 홍보·교육 강화, 고령 운전자 맞춤형 안전관리 정책 등을 단계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박정열 기자 holbul@

## 게시판

**알림** ▲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 상담=마약류 오남용 및 중독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분과 가족을 대상 무료 상담 진행.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 광주주부 함께한걸음센터. 문의 062-374-2818. ▲광주시노인보호전문기관 24시간 노인학대 상담, 학대피해노인전송상담. 노인학대 신고=노인학대를 당하고 계신 분, 목격하거나 알게된 분들 말씀이지 마시고 노인보호전문기관으로 연락주세요. 연중무휴·24시간 전화상담 문의 1577-1389. ▲사랑마루협동조합 사회적취약계층을 위한 복지장려서비스=기초생활 수급자, 조손가정, 무의탁 독거노인, 저소득층, 장애인(3급 이상) 정의입관용품·장례지도사무료지원. 062-369-4009. ▲보호처분 또는 형사처분 받은 대상자 ‘허그일자리’ 무

료 취업 신청=취업상담·직업훈련·일자리 알선·교통비 등 취업지원. 긴급원호·속식제공·주거지원 등 자립지원 신청 접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광주전남지부 062-513-9936. ▲일가정양립지원본부 무료 상담=가정 폭력, 성폭력, 성매매 등 상담. 국번없이 1366. 후대전화를 사용할 경우 062-1366.

**모집** ▲구당침·뜸 수강생=가족건강관리, 노후 건강을 위해 ‘배워서 남주자’란 모토로 구당침·뜸 수강생 모집. 관심있으신 분 누구나 가능. 뜸사랑 광주·전남지부. 문의 062-521-3999.

▲블로그 창업희망자 속성교육생 모집=스마트폰 활용가 능자 모집. 5~6명 개강. 광주대성초등학교 건너편, 광주블로그창업동호회. 문의 062-511-003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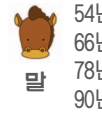
## ონსე (음력 11월 27일)



쥐



토끼



말



돼

48년생 건강문제로 자리에 누울 수도 있다  
60년생 부부 불화 잘 남기면 좋은 결과 있겠다  
72년생 아랫사람에게 잘 해 줘야할 때  
84년생 긴 안목과 넓은 식견으로 바라보라  
96년생 지인의 갑언아실에 속지 말라

51년생 방해꾼이 있으니 살펴보고 대처하라  
63년생 주변 사람들의 기대에 부응해야 한다  
75년생 위험성이 보이면 우회해라  
87년생 새로운 일을 시작하는 것이 좋겠다  
99년생 뜻하는 바를 미루지 말고 해라

54년생 무조건 돌아오는 대로 잡아 뒤라  
66년생 내버려 두면 악화 일로로 걷게 된다  
78년생 변수가 보이지만 지나쳐도 된다  
90년생 배우자일 뒷사람과 상의해 답하라

57년생 처갓집 도움으로 좋은 일이 일어난다  
69년생 길상이 깨끗하면서도 맑은 기운  
81년생 사업 전체적 국면을 인식하고 고찰하자  
93년생 주변이 부러워할 일을 성공하는 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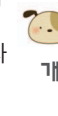
소



송



양



개

49년생 여자 꼬임을 주의하지 않으면 낭패  
61년생 혼자서 어려움을 해결하기 지쳐 있다  
73년생 친지에게 빌려온 금전을 받게 될 것  
85년생 둘을 얻어 하나 잃은 날  
97년생 본보기 될 만한 것이 따로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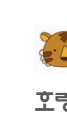
52년생 아랫사람 말을 무시해도 좋다  
64년생 외출하면 몸을 다치거나 병에 걸린다  
76년생 주식(분양권) 단기적 투자해도 좋을 것  
88년생 고지가 눈앞이니 용기내자

55년생 도와주려는 거래처가 줄을 선다  
67년생 미흡하더라도 일단락을 짓고 볼 일  
79년생 참신한 발상과 의식 전환이 시급한 때  
91년생 떠난 것에 미련을 갖지 말 것

58년생 자녀로 인한 근심수가 있다  
70년생 한꺼번에 처리 하자  
82년생 길가에 남자가 기다리니 조심하라  
94년생 가지치기를 잘 해야 효율성을 좋다



강은주 교수의 사주·풍수·직명



호랑이



범



원숭이



돼지

50년생 돈 욕심이 과하면 화를 자초 할수 있다  
62년생 현재의 괴로움은 미래의 기쁨이 될 것  
74년생 외모에 변화를 주면 좋은 일이 생긴다  
86년생 변화 피해 움직이면 어려움이 처한다  
98년생 다툼이 관재 수로 발전 할수 도 있다

53년생 훨씬 수월해질 것이다  
65년생 마음을 깨끗이 뒤로라  
77년생 자녀 일 문제로 버려야 한다  
89년생 생각이 다른 곳에 있으니 심란하다

56년생 투기성 있는 일에는 손대지 마라  
68년생 아랫사람들이 모여 발전적인 상황 작용  
80년생 가족과 사람 사이에서 고민하게 된다  
92년생 연인 약속이 제대로 이행되지 않는다

59년생 좋은 방법이 보일 것이다  
71년생 평소 생각하는 일이 이뤄질 것이다  
83년생 실 틈 없이 바쁘지만 실속 없는 날  
95년생 의견이 일치하지 않아서 부담되는 날